

2013 05 12 일요일

박정현

오늘은 아침부터 나가서 친구하고 농구치고 놀았다. 내가 농구는 좋아해서지 아니라 친구가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 실력을 길러려고 해서 내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농구도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자. -- 바람도 안 불고 하늘엔 해만 떠 있기 때문인지 농구도 더워서 1시간도 못한 걸 같다.. 아... 다음엔 농구 말고 다른 걸 해야지...

일기 끝